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

도를 얻으면 시주집 소가 된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90년 전에 마조 대사 문하에서 80여 선지식을 친견했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훌륭한 본분작가(本分作家)였다. 요즘 사람들은 정신이 가지와 덩굴만 무성한 채 대도시에 들어가므로 성인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일대(一代)마다 점점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다만 남전 스님이 ‘이류(異類) 중에 나아가라’고 말했는데 그대들은 그 뜻을 알고 있는가?”

이러 스님이 말했다. “요즘 노란 부리의 헛방아리들이 4거리 가두에 나아가 어지러운 덩굴 덩어리를 설립하고 밥을 얻어 먹으며 예배할 것을 원한다. 그리고는 300~5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나는 선지식이고 너희는 학인이다’라고 떠들고 있다.”

師又云 老僧九十年前 見馬祖大師下八十餘員善知識 箇箇俱是作家 不似如今知識枝蔓上生枝蔓 大都是去聖遠違 一代不如一代 只如南泉尋常道 須向異類中行 且作歷生會 如今黃口小兒 向十字街頭 說葛藤博飯 竟禮拜 聚三五百衆云 我是善知識 你是學人

조주 스님이 90년 전에 마조 문하에서 80여 선지식을 만났다는 말은 본 <조주록>의 내용이 어느 시기의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조주 스님은 어릴 때 출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남전 스님을 법사로 모실 때까지도 사미였

기 때문에 20세 전에 남전 스님을 만났다. 남전 스님도 마조 문하에서 90년 전 마조 문하가 어디 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40여 년을 남전 스님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20대 이후는 다른 마조 문하에 가지 않은 듯하고, 20세 전에는 법사를 찾기 위해 이리 저리 행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20세 전으로 유추된다. 그렇다면 <조주록>의 이 내용은 대략 조주 스님의 세남 110세 전후의 글이라는 말이 된다.

본분작가(本分作家)는 본분사를 가르치는 경지를 말한다. 선사는 어떤 질문에 대해 미리 답을 정해놓고 말하지 않았다. 그때그때 묻는 자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했다. 선사의 대답은 질문자를 깨닫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순간 ‘방’, ‘격외구’, ‘선구’ 등을 사용해 질문의 근원에 합당한 답변을 했다. 이것은 마치 노련한 작가가 한 쪽의 그림을 단번에 그려내는 것과 같다. 선사의 답변도 한순간 지고 무성한 한 방편이 나오는 것이었다. 듣는 자가 나중에 선사가 말한 뜻을 알았을 때는 기막히게 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무릎을 치고 감탄하게 된다. 그래서 선사를 본분작가라고 말한다.

이류(異類)는 산중 바깥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므로 시정(市井)의 사람들을 뜻한다. 남전 스님은 <조주록> 앞부분에서 “도를 얻은 사람은 산문 앞 시주집의 소가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이류 즉, 대중 속에서 ‘입전수수’ 하라는 말이다. 이에 앞서 그 문답에는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도를 알지 못하고 시정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먼저 흠탕물에 빠져버릴 수 있으므로 남을 제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하나 단속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가 된다는 것은 도를 얻었다 해도 한낱 이류의 심부름꾼이나 일꾼일 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오늘날에는 출가 승려가 반드시 깨닫고 난 다음 도시에서 포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시 사찰에 사는 승려라면 적어도 조주 스님의 이 경책만큼은 깊이 새겨야 한다. 비록 옛 선사의 말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출가자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남에게 존경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도시에 나와 있어도 겸소한 수행자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고,

어나는 장소로 본 것이다. 출가는 도피나 일신의 안일을 위한 행위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조주 스님은 말하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또 하나는 소녀가 애를 배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위법이요, 비윤리적인 일이다. 따라서 조주 스님의 이 비유는 “있을 필요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출가자를 필요 없는 것을 하는 자로 간주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선사(禪師)는 중생을 본래부터 깨끗한 부처로 보기 때문이다. 원래 부처가 또 부처가 되려고 출가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화상께서 친히 남전 노스님을 친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진주(鎮州)에 가야 큰 무가 나와.”
問 承聞和尚親見南泉是否 師云 鎮州出大蘿蔔頭

당시 진주는 큰 무가 나오는 고장이었던 모양이다. 여기서 조주 선사가 하고 싶은 말은 불법을 제대로 배우려면 훌륭한 스승이 있는 도량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알리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특히 선법은 법을 아는 스승과 제자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눈 밝은 스승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답에서 볼 수 있듯이 <조주록>이 모두 격식을 벗어난 선구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 <조주록> 전반부에서 봤듯이 조주 스님은 젊었을 때는 한 편의 여유도 주지 않으려는 선기로 가득했지만, 노년 들어 <조주록>을 기록할 때에는 때로는 쉬운 대답으로, 혹은 때로는 어려운 선적인 대답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제자들에게 교화했다. 100세를 넘겨 살면서 수많은 남자를 접했던 조주 선사는 남자들의 근기에 맞는 각각의 방법으로 대답에 임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진리도 선적인 비유를 들어 대답한 것이 있고, 간혹 몇 단계를 생략한 언어로 대답한 것이 있다. 물론 고준한 뜻이 담긴 선구를 보인 것도 있다. 따라서 선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주록>은 선의 비유나 선적인 낱앙스를 이해하는 것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뜻이 있는 남자들에게 <조주록>은 식지 않는 인기 선사(禪書)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출가자는 일꾼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 불법을 알려면 눈 밝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선(禪)을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이 이 설, 저 설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선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에만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청정한 사원(寺院)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머리를 탄 소녀이다.”
한 스님이 다시 물었다.
“사원 속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머리를 탄 소녀가 애를 뺀 것이다.”
問 如何是清靜伽藍 師云 丫角女子 如何是伽藍 中人 師云 丫角女子有孕

청정한 사원을 머리를 탄 소녀로 비유한 것은 소녀는 아직 남자의 손이 닿지 않은 청정한 상태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원 속의 사람은 출가한 승려들을 말한다. 출가자를 청정한 여자가 애를 뺀 것에 비유한 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청정한 도량은 장차 부처가 될 사람이 태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1

육도(六度)를 거듭 밝히다 (2)

냄새를 맡아 생기는 번뇌를 항복시키면 향기나 악취에 상관없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되므로 인욕이라 한다. 맛봄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누르면 샅된 맛을 탐내지 않고 청송하고 설법하되 게을리하는 마음이 없으니 정정이라 한다. 몸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항복시키면 촉촉부드러운 의복이나 상대의 피부에 접촉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초연해 움직이지 않으므로 선정이라 하고, 생각(인식)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조복시키면 무명을 따르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공덕을 즐기므로 지혜라 한다. 또, 도(度)라는 것은 운반한다는 뜻이므로, 육바라밀은 배나 뗏목 같은 것이라 중생을 운반해 저 언덕에 이르르게 하므로 육도라 하는 나라.

[원문]
能伏鼻賊 等諸香臭 自在調柔 名為忍辱 能制舌賊 不食邪味 讚詠講說 無疲厭心 名為精進 能伏身賊 於諸觸欲 湛然不動 名為禪定 能調意賊 不順無明 常修覺慧 樂諸功德 名為智慧 又度者運也 六波羅密 喻若船筏 能運眾生 達彼岸故 云六度.

[해설]
대상을 부처로 보고, 묘음으로 본다면 어떤 향기나 악취에 끄달려 가지 않습니다. 대상에 끄달려 가지 않음을 인욕이라 합니다. “항상 청송한다”는 맑은 마음에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염불을 하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을 설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정이라 합니다.

또, 마음이 육근을 통해 대상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합니다. 생각으로 일어나는 온갖 번뇌 망상도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꿈 속에서 대상에 끄달려 가다가 꿈을 깨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현실도 꿈속에서 꿈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현상 세계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무명에 끄달려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에 한 생각 놓지 않고 정진 한다면 율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을 배나 뗏목과 같다고 비유한 것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대상을 부처님으로 볼 수만 있다면 분명 그 순간이 부처님 경지입니다.

#법유를 밝히다
다시 “부처님이 서말 여섯 되의 우유를 마시고 서야 불도를 이뤘다 했는데 여섯 마음을 관(觀)하기만 하면 해탈할 수 있다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마셨다는 것은 세상의 부정함 짙지 않아서, 진여의 청정한 법유(法乳: 어머니의 젖으로 아이가 성장하듯이 스승의 가르침으로 제자가 진보하므로 그 가르침을 법유라 함)이 아니라, 서말은 삼취정계를 뜻하고, 여섯 되는 육바라밀이 아니라, 부처님이 성도할 때에 이 청정한 법의 젖을 마신 까닭에 불과(佛果)를 깨달았는데 여래가 세상의 육욕으로 이루어진 더럽고 비리하며 누린 내니는 젖을 마셨다고 한다면 비방이 지나치지 않겠느냐.

[원문]
又問曰 經文所說 釋迦如來 爲菩薩時 曾飲三斗六升乳 方成佛道 即先因食乳後 證佛果 豈唯觀心得解脫也 答曰 誠如所說 無虛妄也 必因食乳 然始成佛 佛所說食乳者 非是世間不淨之乳 乃是眞如清淨法乳 三斗者 卽三聚淨戒 六升者 六波羅密 佛成道時 由食此清淨法乳 方證佛果 若言如來 食於世間狀欲和合 不淨 腥之乳者 豈不成謗之甚乎.

[해설]
부처님은 단식·고행 끝에 우유죽 공양을 받았습다. 우유는 육체를 길러 주기 위한 음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우리의 마음을 맑혀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진여의 청정한 법유는 모든 물질의 본질, 바로 마음세계를 말합니다. 마음은 분명 있지만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니니까 모양이 있을 수 없고 청정한 것입니다. 사람·짐승의 차별을 떠나 본래 마음은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청정한 그 마음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불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모든 물질의 본질을 과학자들이 쪼개고 쪼개서 분석해보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물질로 보이기도 하고 에너지로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 냈습니다. <반야심경>에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원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설했습니다. 부처님도 법유를 마시고 성불했으니 우리도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꾸준히 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성성이 깨어 있으면 부처가 된다는 얘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천기비밀 庚寅年 365일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365일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x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上·下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④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⑤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 著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비법전수중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